

아르헨티나,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에  
따른 IMF앞 탄력대출 신청

1. IMF 금융지원 신청 배경: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자금 유출  
우려 대두

□ 미 달러화 가치 상승 및 아르헨티나 소재 해외 자본 유출 우려

-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폐소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바, 사전 예방적 금융지원을 통해 비상시 대응 능력 제고를 도모함.
- 아르헨티나 폐소화의 지속적인 약세는 중남미 3위 경제 국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결여를 보여줌.

미 달러화 대비 폐소 환율

2016년	2017년	2018년			
		1월	2월	3월	5월8일
14.76	16.56	18.98	19.83	20.70	22.48

자료: IMF, Bloomberg

- 탄력 대출(Flexible Credit Line, FCL)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으면서도 일시적으로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가 IMF로부터 별다른 조건없이 필요한 만큼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임. 멕시코 · 콜롬비아 · 폴란드가 이용한 바 있으며, 다음의 IMF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
  - A sustainable external position
  - A track record of steady sovereign access to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t favorable terms
  - Sound public finances, including a sustainable public debt position
  - Low and stable inflation
  - Sound financial system
  - Effective financial sector supervision

2. 경제 현황: 높은 물가상승률 및 한정된 외환보유고 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

아르헨티나 주요 경제 지표

(단위: 백만불, %)

구 분	2014	2015	2016	2017	2018 <sup>e</sup>
경제성장률	-2.5	2.7	-1.8	2.9	2.0
재정수지/GDP	-4.3	-5.8	-6.4	-6.5	-5.5
경상수지/GDP	-1.6	-2.7	-2.7	-4.8	-5.1
소비자물가상승률	38.1	26.5	40.3	25.7	22.6
외환보유액	29,017	23,417	36,323	53,031	n.a

자료: IMF

□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

- 폐소화 가치하락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의 높은 물가상승률, 한정된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아르헨티나 경제가 위기 발생시 견딜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음.

□ 외환보유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, 여전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임.

- 2016년 외환보유액은 미국 주요 은행들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5% 증가한 36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2017년에는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달러화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530억 달러를 시현하였음.

3. 향후 전망: 향후 수개월간의 결과에 따라 마크리 대통령의 2019년 대선에서의 재선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, 주요 신흥국의 경제 위기 발생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IMF 지원이 논의되더라도 기존의 친시장 개혁·개방 정책 등 마크리 정부의 정책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나, 향후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상황이 되었음.

- 당초 마크리 대통령은 친시장 정책 등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해 2019년 대선에서 재선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, 금번 IMF의 금융지원으로 인해 향후 수개월 간 유권자들의 평가에 따라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음.

- 유권자들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, 야당 측에서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.
- 마크리 정부는 2015년 말 출범이후 향후 수개월간 가장 중요한 시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.
- 높은 물가상승률 및 이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 가격 상승 등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다면 정치적인 어려움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, 야당 측에서는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됨.
- 대다수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IMF는 금융지원을 제공한 반면 국가 채무를 발생시킨 주체로 기억되고 있는바, 금번 금융지원 협의로 인해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임박한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음.

#### □ 신흥국 경제위기설 대두 및 향후 모니터링 필요성

- 아르헨티나의 금융지원 요청으로 인해, 최근 높은 환율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·터키 등 신흥국의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음.
- 미국 기준금리 인상조치에 따른 신흥국에서의 자금이탈에 더하여,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상승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신흥국 경제 전반에 불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바, 향후 경제지표 분석 등 모니터링 필요

책임조사역 이자호(☎ 02-6255-5705)

E-mail: leejaho@koreaexim.go.kr